KISTEP 수요포럼 포커스

(제142회) 2022년 경제 전망과 과학기술분야 대응 전략*

1. 논의 배경

□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론적·경험적으로 충분히 증명되었으며, 경제 성장을 통해 축적한 자본은 지식 창출 및 확산에 재투자된다는 점에서 **과학기술과 경제여건은 상호보완적 관계**임

o 경기침체 및 회복의 국면은 중장기 시계에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일반적이나, 특정한 대외환경적 요인에 의한 장기 불황 국면이 지속될 경우 **국가 경제 전반의 R&D 활동과 방향성은 급격히 침체될 우려**

□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, 디지털 전환 및 산업구조 개편 본격화,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 및 벨류체인 변화, 탄소중립을 비롯한 지속가능성 관련 의제의 부상 등으로 인하여 **최근 경제 상황은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고조**

o 이에, 최근의 **대내외적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**, 문제 해결을 위한 **과학기술 관점의 대응 전략 모색**이 긴요

---

* 포커스 자료는 '제142회 수요포럼('22.2.9.)'의 발표자료(발표자: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)를 요약한 것으로,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(KISTEP)의 공식 견해와 무관합니다. 또한, 해당 발표자료의 상세 내용은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「2022년 10대 경제 키워드: AFTER TIMES(코로나 이후의 미래)('22.1.3.)」 보고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.

2. 현황 및 이슈

가. 대외·외 경제 여건 변화

□ **(세계경제)** 세계 경제성장률은 ’20년 △3.1%에서 ’21년 5.9%로 반등하였으나, **’22년에는 4.4%로 성장률 하락 전망**

o **(미국: 회복 감속)** ’22년 경제 상황은 개선이 전망되나, 백신접종률·공급망·인플레이션 등 **불안요인 산재**

o **(중국: 성장률 하락)** 경제성장률은 ’22년 2.3%, ’21년 8%로 기술적 반응 이후 **’22년에 4% 내외로 둔화** 전망

o **(EU: 회복세 지속)** 내수 부문을 중심으로 ’22년에도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나, 확진자 수 급증에 따라 **‘위드 코로나’ 중단과 재침체 가능성**도 상존

o **(신흥국)** 신흥시장 내 **경기 격차 심화** 전망

- **(인도)** 델타변이바이러스의 충격이 완화되고, 중국의 생산 부진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**회복세 강화** 전망
- **(브라질)** 자원수출국임에도 중앙은행 통제를 벗어난 극심한 인플레와 포퓰리즘 정책으로 **역성장 우려**
- **(러시아)** 원유 및 천연가스에 대한 성장의존도가 높은 가운데,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**고성장 예상**





□ **(국내경제)** ’20년 3분기를 정점으로 ’21년 3분기까지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추세이나, 최근 민간소비가 일정 부분 회복하면서 **경제성장세 강화 전망** ⇨ ’22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보다 높은 **2.8% 성장률 전망**

o **(경기동행지수)** ’20년 1월을 정점으로 ’20년 5월까지 경기 하강이 지속되었으나, ’20년 6월 이후 상승 추세를 지속하면서 **코로나19 위기 수준을 상회**

o **(소비)** ’21년 상반기부터 회복의 흐름을 보였으며, **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소비 회복을 뒷받침**하면서 **민간소비 증가율은 ’22년 2.7% 기록 전망**

o **(설비투자)** 비대면 시장 급성장에 따른 **ICT 설비 수요 확대로 호조세를 지속**하고 있으나,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라 **기업 투자 심리 악화 우려** 상존

o **(수출)** 수출 물량은 소폭 증가하겠으나, 수출 단가 상승의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**수출 증가율은 낮은 수준 전망**

o **(고용) 대면 업종을 중심으로 내수 시장이 회복**되면서 소폭 개선이 예상되나, **‘좋은 일자리’ 비중은 높지 않을 전망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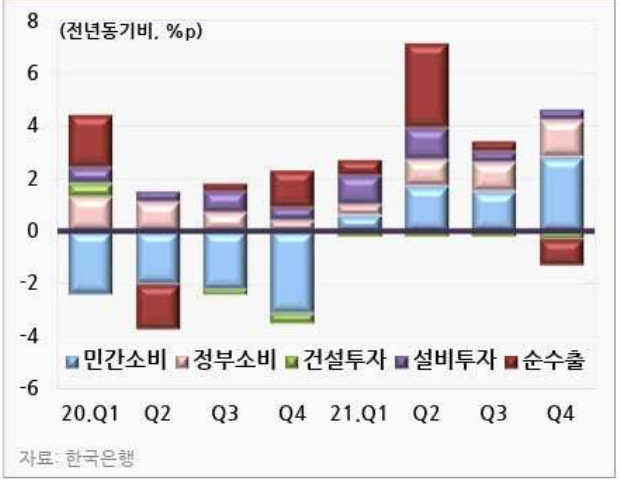
o **(물가)** 원유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높은 수준의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 작용해 **2% 내외 물가상승률 전망**

분기 경제성장률(계절조정지수) 추이



자료: 한국은행

경제성장에 대한 수요부문별 기여도 추이



자료: 한국은행

나. 2022년 경제 10대 키워드: “AFTER TIMES”

□ (Asymmetric recovery) 비대칭 경기 회복

o ’22년에도 **세계 경제의 회복 기조는 지속**될 것으로 보이나, 팬데믹 위기에서 **완전한 탈출은 불가능**하며, **선진국 상황이 신흥·개도국보다 안정적**일 것으로 전망

□ (Forward guidance) 美 연준의 제로금리 탈출

o 1~2분기 중 금리인상 시작이 예상되며, 상황에 따라 **양적긴축(QT; Quantitative Tightening) 동시 진행 가능성**도 상존

□ (Twin deficit) 신흥시장의 불안정성 확대

o 상당수 신흥국 경제 펀더멘틀이 취약한 상태에서 선진국과 **경제성장률 격차가 최근 20년 내 최저 수준**이며, ‘경상-재정’의 **쌍둥이 적자** 속 자본이동 방향성이 전환될 경우 **신용경색이나 디폴트 우려**

□ (Endgame) 코로나19의 불확실성 속 정상화 단계 진입

o 올해 연초 오미크론發 글로벌 대유행으로 세계 경제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나, 시간이 지나면서 백신 및 치료제 보급 확대, 방역 기술의 발전, 경제의 내성 강화 등 영향으로 **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미약하나마 우위를 확보**할 것으로 기대

□ (Rhino) 차이나 리스크의 심화

o ’21년 하반기 ‘헝다 그룹 사태’에서 보듯, **중국 부동산 버블, 그림자 금융, 지방정부 부채 등 세 마리 ‘회색코뿔소(Grey Rhino)’**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존하며, 중국 경제가 급격한 경기침체에 빠질 경우 **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큰 충격** 불가피

□ (Taylor's rule) 한국은행의 출구전략 지속

o '22년 말 기준금리는 **약 2% 내외로 예상**되는 가운데, 시중금리 인상에 따른 **원리금 상환 부담 가중**과 **실물경제 회복세 미약**이 겹쳐지면 **서민 경제 활력이 저하**될 우려

□ (Inertia effect) 보복 소비 기대와 회복 지연 우려 병존

o 소득이 감소해도 이전의 높은 소비 수준을 줄이지 않으려는 관성(이른바, 톱니효과)과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'예비적 저축 동기(precautionary saving)'가 부상하리라는 **상반된 예측이 병존**

□ (Mild recession) 경기 상승세의 둔화

o '07-'08 글로벌 금융위기의 회복기간('09.2.~'11.8.) 중 **일시적 경기 후퇴('10.7~)가 존재**하였음을 상기하면, 향후 오미크론發 대유행 후에도 **소프트패치(soft patch)가 부상**할 가능성

□ (Economic misery index) 서민 체감 경기의 부진

o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한 **'경제고통지수(economic misery index)'는 '21년에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수준**을 기록하였으며, '22년에도 하락폭은 미미할 전망으로 **외형상 경제 지표의 회복에도 체감경기 개선은 당분간 요원**할 것

□ (Secular stagnation) 장기 침체에 대한 우려

o 코로나19 이후 **성장잠재력 급락**과 **저성장의 장기화**가 우려되며, 생산가능인구 급감에 따른 **노동력 부족도 잠재성장률 급락을 부추기는 상황**

3. 정책 제언

□ **(대외환경 변화 대응)** 최근 경제·사회 **위기 전파의 빠른 속도와 광범위성**을 감안하여 과학기술계도 글로벌 불안요인을 **사전에 감지·대응할 수 있는 위기관리 역량** 필요

o 선진 시장 정상화와 국내·외 수익률 격차에 따라 **민간 R&D 투자가 국외로 순유출될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**하고, 민간의 주도적 기술혁신활동을 촉진할 **국내 투자 생태계 건전화 노력** 경주

o 국가 경제 위상 증대*, 디지털 전환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중요성 대두에 발맞춰 국내 주력 산업의 핵심성장동력을 **'개발도상국形 중·화학공업 중심'**에서 **'선진국形 디지털 경제'**로 점진적 변화시킬 수 있는 **산업기술혁신정책 요구**

* '개발도상국→선진국'으로 지위 변경('21.7., UNCTAD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)

o **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GVC 재편에 대응**할 수 있는 독자적인 **기술 확보** 위하여 **고위험 혁신기술 연구**에 대한 지원을 강화

□ **(국내경제 변화 대응)** 고용위기, 저성장, 잠재력 위축 등 국내경제의 변화에 대응하여 **사회적 안전망과 새로운 성장동력**을 제시할 수 있는 **과학기술 본연의 사명을 충실히 견지**

o 금리인상 기조 속에서 **기술창업의 위축**과 **기존 벤처 기업의 한계기업化**가 우려되므로 정부의 과감한 직접투자 및 간접적 인프라 확충을 통해 **탄탄한 모험자본 생태계** 구축

o 디지털 전환, 탄소중립, ESG 등 사회·경제적 이슈를 **과학기술계가 선점**하고, 합리적 해법을 바탕으로 일반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**정책 수용성을 제고**할 필요

- 경제·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연구개발사업을 지속 발굴하고, **과학기술계의 사회적 책임(Social Responsibility) 제고 노력** 경주

o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**생산성 저하의 문제가 현실화**된 만큼, 노동력 저하를 효과적으로 상쇄할 수 있는 **혁신적 핵심·원천기술 확보**에 **국가 R&D 역량을 집중**할 필요